【자유교회 소식】

1.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로 모인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이화평 선교사님을 환영하오며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3. 기도 순서를 맡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달씩 성경봉독 순서를 맡도록 합니다. 모든 교우가 예배를 섬기고 직접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4.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출타하신 분 그리고 장기간 결석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심방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3,760.00	
감사헌금:	$60.00	
주일헌금:	$100.00	
특별헌금:	$220.00	합계$4,13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 일 / 예 / 배

예배의 부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 양 팀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37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유정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성경봉독자
성경낭독	로마서 15:16	안혜미 집사
설 교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화평선교사
찬 송	온 세상 위하여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최미선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주일오전 11시 15분
주 일 교 회 학 교	주일오전 11시
아 침 묵 상	월-금 오전 8:00
Youth Group	수 오후 7시(FFC 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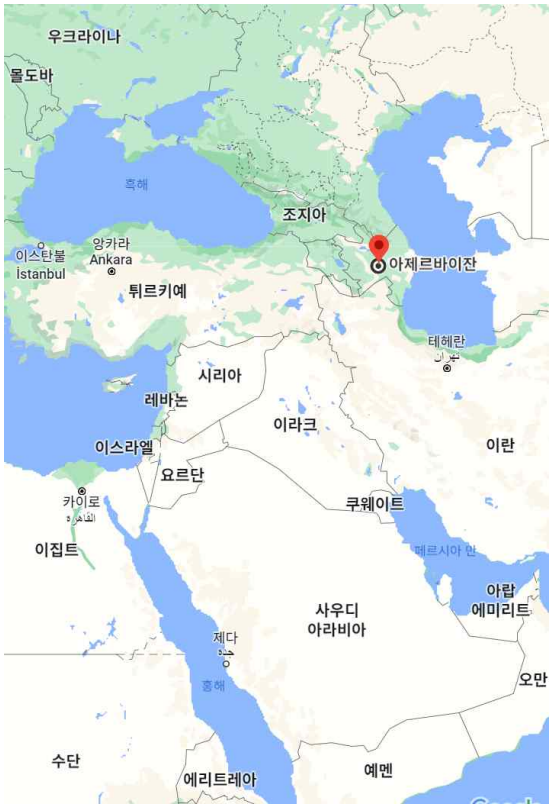
2023년 9월 17일 2023-38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com
E-Mail: jayooch@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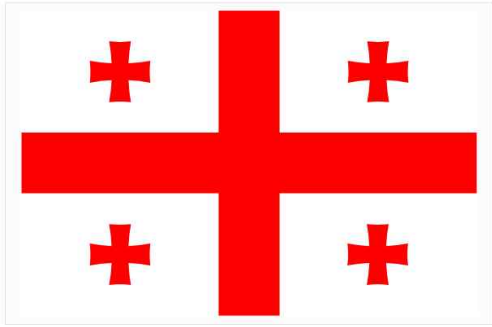
조지아(Georgia)라는 영어 국명은 기독교 성인인 성 게오르기우스(제오르지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 학계에서는 부정된다.

실제로는 페르시아어에서 조지아인들을 가리키는 말의 어근인 '구르지(گرج / gurğ)'를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이 수입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구르지' 자체는 늑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12세기 서유럽인들이 이 명칭을 게오르기우스와 연관된 것으로 착각하였고, 조지아 사람들도 여기에 착안해 성 게오르기우스를 자국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해 온 것은 사실이다. 조지아의 현행 국장에도 용을 무찌르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조지아의 영어 국명인 'Georgia'는 미국의 조지아 주(Georgia state)와 철자가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영어권(특히 미국)에서는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아르메니아와 함께 세계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인 만큼 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며 사회적 영향력도 꽤 높은 편. 주변이 아랍, 터키 등 이슬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슬람 세력의 끝없는 침략을 받아오면서도 1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신앙을 지켜 왔기 때문이다.



현재 조지아 국기(다섯 십자가)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의 연안국이자 남캅카스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바쿠(Baku, Bakı)이다. 본토 외에 나흐츠반 자치공화국이란 월경지가 있는데 소련 치하의 행정 체계를 그대로 답습했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분출하는 천연가스로 만들어진 불기둥들이 잘 알려져 있다. 열린 바다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호수인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으며 이 바다를 통해 다른 몇몇 국가와 해로로 연결된다. 수도인 바쿠도 카스피해 서쪽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영토의 20% 가량이 지리적으로 동유럽에 속한다. 각종 정치적 국제 기구도 유럽 소속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고대와 중세에는 그리스 동로마 문화권, 근현대에는 동유럽권에 속해 문화적으로 유럽에 가까운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와 달리 아제르바이잔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페르시아·튀르크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서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접점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아제르바이잔을 오늘날에는 동유럽권으로 보는 이유는 19세기 이래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현 아제르바이잔 국기